

사주로 보는 세상

효원/남강



소개글

목차

• 도화살과 낙이불음	5
• 글로벌시대의 역마살	8
• 물이 많은사주	11
• 물이 많은 사주 1.	13
• 역마살에 대한 변론 (상,하)	15
• 궁합과 월하노인	18
• 검사와 여선생	21
• 탐재괴인.	24
• 금이 강한 사주 (구월에 태어난 사람)	27
• 향용유회	29
• 화가 많은 사주	32

• 고독과 강남스타일	35
• 양산시민신문 창간 9주년에 부쳐(신사의 품격)	37
• 학업운 과 인수	40
• 내가 입을 열면 다쳐	43
• 등터지는 새우들	46
• 사주에 물이 과다한 경우.	49
• 문재인과 동일가애	54

• 도화살과 낙이불음

역리칼럼]도화살과 낙이불음

2012년 03월 06일 419호 [양산시민신문] 경로복사

지천명(知天命) 나이에도 하늘의 뜻은커녕 여색만 밝히는 친구가 있다. “한 여자만 사랑해도 부대끼는 시간에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느냐?” 힐난하니 대뜸 받는 말이 “팔자에 도화살이 많고 고독해서 그래” 였다.

설마 고독하다고 세상의 모든 남녀가 색정에 몸을 맡기랴. 사주팔자에 있어야 한다. 남녀 불문 인기 있고 연애 잘하려면 사주가 습해야 한다. 물(水)이 많아야 한다. 여명(女命)에 수(水)가 세 개 이상이면 볼 것 없이 미녀고 섹시하다. 남명(男命)에 수가 많으면 여자가 잘 따르고 유창한 언변에 두뇌 또한 비상하다.

성적매력에 수의 기운보다 더 앞서는 것은 도화살이다. 남녀 모두 사주의 지지(地支)에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네 글자 중 한 자라도 있으면 도화살로 본다. 도화는 복숭아꽃 빛(색기)을 의미하며 사주에 이 살이 발달하면 성적매력과 미모가 출중하다.



↑ ↑ 손병호
역리학자, 남강역술원장
©

시중의 명리 서적들은 “이 살이 과하면 음주 가무와 미색을 탐하고 음란한 행동으로 인륜을 거슬러 폐가망신하게 된다” 며 경고하고 있다.

무자(戊子)년 무오(戊午)월 계유(癸酉)일 무오(戊午)시 (여명-女命)

맹랑한 사주다. 여자의 일간이 계수(癸水)다. 계수는 물이니 물을 극하는 토(土)가 여자에게는 남편이요. 사내다. 천간(天干)에 무토(戊土)가 세 개나 났다. 무토 세 사내가 한 여자(癸水)를 서로 차지하려고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하는 상황이다. 지지(地支)의 상황은 더욱 기가 차다. 년 월 일 시 사주 모두에 도화살이 만발했다. 결국 여자 운 없는 남편(연간의 무토) 만나 젊은 나이에 사별,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떠도는 노류장화가 됐다고 알려진 여인의 사주다. <출처: 박평원 저, 명리대전 고급 편>

도화살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도화살은 인기 살이다. 이 살이 없으면 무미건조하고 냉랭한 성격이다. 문화와 사교에 필수적인 살이다. 수많은 예술가가 비상한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타고난 끼를 갈고 닦아 문화, 연예, 오락 분야에서 빛나는 별이 되고 있다.

임자(壬子)년 계묘(癸卯)월 정유(丁酉)일 임인(壬寅)시 (남명-男命)

이 사주 역시 자, 묘, 유 세 개의 도화살이 흐드러졌다. 게다가 연간(年干)과 연지(年支)에 임수(壬水), 자수(子水), 월간과 시간에 계수(癸水), 임수(壬水)가 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로 마치 술한 복숭아꽃이 휘날리는 형국이다.

남명이니 사주 액면가대로 풀면 한량 사주다. 서두의 친구처럼 한 곳에 붙박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살아갈 운명이다. 그러나 사주 주인공 스스로 자신의 뛰어난 감각과 감수성을 믿고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최고의 인기 대중 스타가 되었다. 바로 한국 대표 미남 배우, 장동건의 사주다.

도화살! 잘만 관리하면 여러 사람에게 행복과 웃음을 나누어주는 인기 살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신중한 언행으로 이성 문제에서 필요 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할 일이다. 공자 왈 “낙이불음(樂而不淫)” 이라. 세상사 즐거움이 지나치면 음행으로 이어지니 모쪼록 경계하며 살 일이다.

• 글로벌시대의 역마살

[역리칼럼]글로벌 시대의 역마살

2012년 02월 07일 415호 [양산시민신문] 경로복사

명리학에서 역마살인 인신사해(寅申巳亥)를 다른 말로 사맹(四孟)이라고도 한다. 사주의 지지(地支)에 인신사해 가운데 한 글자도 아니고 네 글자가 한꺼번에 사주에 있는 사람은 세상만사 모든 풍파를 겪으며 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겐 무관(武官)팔자라 하여 판, 검사나 군인, 경찰, 의사 등 생사여탈과 관계있는 직업을 권한다. 즉 생명을 다루는 라이센스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운명적 암시에 이끌려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직업에 이런 흔치 않은 사맹 사주가 의외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 여기 한 사람의 사주가 있다.



↑↑ 손병호
역리학자, 남강역술원장
©

정사(丁巳)년 신해(辛亥)월 경신(庚申)일 무인(戊寅)시.

사주의 지지에 인신사해 네 글자가 빠짐없이 들어있다. 일제시대 약관의 나이에 문경소학교 교사 자리를 때려치우고 칼 찬 군인이 되고자 멀리 만주로 가서 군관학교에 입교한 사람이다. 여순반란사건 때는 좌익 군인으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는 불과 소장이라는 계급이었지만 특유의 강한 기질로 1960년대 초 군사정변을 일으켜 무력으로 권좌에 올랐다. 아시다시피 故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다. 이만큼 인신사해라는 역마살은 간단치 않은 살(殺)이다. 하필 그가 가장 믿었던 심복, 김재규에게 시해된 날의 일진조차 역마가 날뛰는 인(寅)일이라 궁정동 안가(宮)에 호랑이(寅)가 발호하는 날이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생사권의 냉혹함이 도사리고 있으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주가 바로 사맹이 모두 들어 있는 이 사주이다.

그렇다면 왜 역마살이 우리에게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을까? 실제로 역마살의 구성요소 인신사해는 인신 충(沖), 사해 충하여 나무의 기운을 가진 인목(寅木)과 칼의 기운을 상징하는 신금(申金)이 서로 날카롭게 극하고 있고 불의 기운인 사화(巳火)와 물의 성분인 해수(亥水)가 대치되고 있는 형상이다.

날카로운 칼이 거목을 단칼에 베려하고 천지를 뒤덮는 물이 거세게 활활 타오르는 화마를 맞아 일전을 불사하고 있는 형국이니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인사신(寅巳申), 세 글자가 함께 있으면 인사신 형(刑)이라 하여 일생 중 한번은 감옥살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주풀이가 있다. 하지만 위기 없는 기회가 없듯이 이 사주는 위험을 수반하면서 큰 미래를 도모하는 사주임에는 틀림없다. 요즘 말로 위기관리에 능한 사주다.

지금은 정보통신사회이다. 남보다 정보가 늦으면 업계에서 바로 그날부로 퇴출이다. 순간순간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폭넓은 네트워크와 고성능 안테나로 낚아채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시간 내에 처리해야만 조직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

요즘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가 심상치 않다. 금융과 주식시장이 안갯속처럼 불투명하고 환율이 전처럼 또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나라에서 내놓는 대책은 신속하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오죽하면 금융전문가들조차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고위관료들 말보다 증권가에 떠도는 낱장 광고나 인터넷에 떠도는 익명의 인물이 흘리는 정보에 관심과 촉각을 곤두세울까? 무한 경쟁의 국제적인 금융정보 산업시대에 역마살이 강한 인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

- Copyrights ©양산시민신문.

• 물이 많은사주

〈제 사주에 물이 많아요.〉

“선생님 제 사주에 물이 많아 물장사를 하면 돈벌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사실인가요?” 젊은 여성들로부터 이따금 듣는 말이다. 사실, 물장사도 일종의 사업이니 사업가 기질이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사주팔자 구성이 직장보다 사업가에 해당돼야 한다. 물이 많아 물장사, 목이 많으니 가구점이나 목재상을 해라는 식의 사주풀이는 깊은 철리(哲理)가 담겨있는 음양오행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해석이다.

임자(壬子) 갑진 (甲辰) 기축(己丑) 을해(乙亥) (女命) 1972년 4월 28일 해시생.

위로는 임(壬)수 아래는 해자축(亥子丑) 수 방(方)에 자(子)와 진(辰)이 수국(水局)을 형성해 온통 물바다다. 누구도 이 물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수기가 거센 사주다.

몇 년 전 학력위조와 고위관료와의 스캔들로 온 국민의 화제가 되었던 한국의 팜파탈 신정아씨 사주다.

사주에 물이나 불과 같은 특정 오행이 과다하게 많거나 발달되면 그 오행의 특성이 성격이나 인생행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오행에서 내면적으로 지혜, 시간으로 밤, 방위는 북쪽, 계절은 겨울이다. 인체 생리로는 신장 방광을 뜻하니 결국 생식능력과 관계있다.

남녀 공히 사주에 수기운이 발달되면 지혜가 뛰어나고 기획력이 있으며 처세술이 좋고 성욕이 강하다. 물의 성격대로 항상 흘러가며 움직이기를 좋아한다. 겉으로 자신을 낮추고 아래로 숨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욕망과 꿈을 갖고 다양한 생각을 한다. 태과하면 음습한 이중적인 성격에 지혜가 지나쳐 권모술수에 강하고 복잡한 남녀관계 등 부정적인 암시로 바뀐다.

오래전부터 역술계에 전해오는 호사가들의 흥미를 끄는 사주풀이가 있다. 여자 사주에 물(水)이 많고 흙(土) 또한 많은 경우다. 신씨 사주의 예를 들면 천간 기(己)토가 본인이다. 진(辰)토와 축(丑)토까지 가세하니 흙이 많다. 그냥 물만 많은 사주가 아니다. 상당한 흙이 함께 섞여 뽕 밭이 되었다. 이런 사주는 정서적으로 화끈하기보다 비밀스럽다. 사내로 하여금 까닭 없이 몰입 되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킨다. 신체 구조적으로 상상해보자. 낙지의 흡반처럼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움푹 달삭한, 끝 모를 진흙탕 수렁이다. 명실 공히 오묘한 명기의 소유자, 색의 달인인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 사주에서 남자는 나무(목)이다. 천간에 갑,을목이 서성거리고 있으니 주위에 남자들이 항상 대기 중이다 하지만 지나친 수의 기운에 뿌리가 썩거나 물에 떠내려가는 부목이 되니 배겨내지를 못한다. 또 불(火)기운이 전혀 없어 어둡고 음습하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어렵다. 숨어서 하는 남녀사이다. 사주에 합이 많으니 더욱 그런 성향이 짙어진다.

자존심도 강하고 지혜로운 사주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한 남자에 머물지 못하고 비밀리에 여러 남자를 거치며 정염을 불태우는 비정상적인 삶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것은 물, 불, 흙의 조화다. 물이 많은 사주에 흙과 불이 조화를 이루면 곧 만물의 육성이다. 적절한 시기의 대운에 화기(火氣)만 왔더라도 뛰어난 재능을 사회를 위해 꽃 피웠을 텐데……. 60대 후반에야 비로소 희미한 불빛이 보이니 아쉽게도 어둠속에 핀 한 떨기 요화로 머물고 말았다.

남강 손병호 / 역리학자. 남강역술원장 (017-560-3490)

• 물이 많은 사주 1.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존디랄 드리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중략〉

현존하는 最古가요 정읍사의 일부이다. 행상나간 남편이 부디 진흙땅(존디-윤락가)을 밟지 않고 무사귀환을 바라는 여심이 노골적으로 엿보인다. 이로부터 고대에도 물이 있는 곳은 대체로 성이 지배하는 곳으로 여겼던 것 같다.

어쩌든 여성의 사주에 수가 많으면 일단 색이 강하다고 봐야하고 수가 과한 사주에 도화살이나 합이 많으면 더욱 그런 경향이 짙어져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파트너를 바꿔가며 정염을 불태우다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가 많은 사주에 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일단 불을 끄는데 기운이 집중되니 물의 기세가 수그러 들것이다. 한편, 제 아무리 활활 거세게 타오르는 불도 소방호스를 갖다대면 끝이 나기 마련이다. 인간의 경우라고 다를까? 서로가 당장 헤어질 것처럼 ‘화’ (불)를 내며 싸우다가 다음날 아침 팔짱을 끼고 밝은 모습으로 출근하는 신혼부부들. 간밤에 그 집에 시원한 소나기(수)라도 한바탕 내렸음 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 불, 흙의 조화이다.

물이 많은 사주에 흙과 불이 조화를 이루면 곧 작물의 육성이다. 물만 많은 사주는 한냉하다. 적당한 온도에 수분이 있는 흙은 만물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되니 좋은 사주로 보는 것이다. 남편에게 내조하고 자식에게 자애로운 어머니로 양식있는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사주에 물만 있다고 걱정 할 것은 없다. 해마다 오는 연운이나 십년마다 오는 대운에 불과 흙이오면 큰 재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닦으며 기회를 기다려야만 한다.

*****수가 많은 사주 실례 (37세 여, 서면에서 노래방 운영)

〈상담녀: 선생님 제 사주에 수도 많고 남자도 많았는데 왜 좋은 남자가 안 붙나요?〉

남강선생: 원인은 바로 자네 사주보다 남자를 사귀는 유형이 "통화중 유형"이기 때문이야.

상담녀: ???

남강선생: 사주에 물이 많으니 인물이 좋은데 음사에 관심 또한 많으니 남자가 많은 것은 당연 하지 하지만 항상 통화중이니 정작 중요한 통화는 연결이 될 수 없는 게야.

상담녀: 원 말인데요?

남강선생: 아! 자네가 몰라서 물어? ...한 남자를 만나고 다음 남자 만날 때까지 정리기간 내지 휴식기간이라도 있어야 일이 될 것 아냐? 이 상대에게 실패하고 다음상대가 나타나면 전의 실패원인도 생각해보고 이번 상대에 대해 돈, 성격, 직장, 인간관계, 차분히 저울질도 해보고 돈 안 되면 아예 정도 주지 말고 매듭을 지어야하는데... 당장 색기가 발동해 전의 남자와 채 끝내기도 전에 다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니 항상 일이 꼬이고 머리는 복잡하지... ..쯔쯔 자넨 항상 통화중이니 제대로 된 남자가 자네에게 통화할려해도 통화가 되어야 말이지...자기 팔자 자기가 만드는 대로 가는 것 이야. 너는 남자에게 너무 험프게 마음을 주고 시작을 쉽게 하는데 반해 끝맺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당장 그 못된 버릇부터 고쳐야 팔자를 고칠 수있을게야.

• 역마살에 대한 변론 (상, 하)

(상) 대가(大家)와 역마살

써머셋 모옴은 인상파 천재 예술가 고갱의 일생을 모델로 한 그의 소설 <달과 육펜스>에서 “자신들이 태어나야 할 곳에 태어나지 못하고 딴 곳에서 태어났다” 는 생각을 가진 특이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서는 오히려 나그네처럼 느끼며 친지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며 늘 미지의 고향에 대하여 항상 어떤 강한 향수를 느끼며 산다.” 고 설파하고 있다.

동양권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한마디로 역마살(驛馬煞)을 타고났다고 한다. 멀리 외국작가까지 거론 할 것 없다. 소설가 김동리는 1948년에 이미 경상도 하동의 화개장터를 배경으로, 역마살을 소재로 서정적이면서 토속성 짙은 단편 <역마>를 발표한 바 있다. 한 때 TV 단편드라마로 소개되어 더 유명해진 이 작품은 '역마살'을 타고 태어난 한 청년의 사랑과 삶을 소재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다룬 인생 유전 극이다. 물론 여기서 소설 제목인 역마(驛馬)는 유랑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말한다.

역마살이 세다고 하면 흔히 바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기실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역마살이 센 친구들도 있다. 일이든 예술이든 어딘가 미쳐있는 이들이다. 일에 미치면 장인이 되고 문학이나 예술에 미치면 문호가 되거나 아티스트가 된다. 즉 대가 반열에 든다. 물론 간혹 여자에 환장해 가정도 버리고 파락호가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어쨌든 이런 역마살이 끼면 인생을 호락호락하게 살기는 힘드나 녹록치 않은 그들의 인생여정은 들여다보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가 된다.

사주명리학에서 역마살은 백호살, 도화살처럼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신살(神殺)중의 하나다.

“당신 남편, 올해 역마살이 끼여 가을 즈음 집을 떠날 팔자군.” 당신 아들 내년에 역마살이 발동해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가출할거야.” 때때로 일부 사이비 예술인이나 사이비 무속인들이 이 살을 들먹이며 상담자들에게 부적을 강요하거나 기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역마살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 역마살인가? 사주팔자에 네 계절의 시작이 되는 달을 상징하는 인(寅-봄), 신(申-가을), 사(巳-여름), 해(亥-겨울) 네 글자 중 하나가 지지(地支)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글자들이 두 개 이상이거나 겹치면 그 작용은 훨씬 크다.

사주에 역마살이 있으면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역마살이 관(官)을 지니게 되면 고관이 될 운명을 암시한다. 만약 재성과 함께 있으면 수만금의 돈을 번다고도 한다. 인기로 먹고 사는 탤런트나 가수들도 도화살과 역마살이 같이 있어야 큰 히트를 친다. 뿐이라 어려운 취직자리도 역마살이 강한 사람이 거들면 쉽사리 풀리는 수가 있다. 만약 관재수로 옥고를 치르는 사람에게 역마살이 오면 뜻하지 않게 석방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명(男命)에 재(財)가 역마에 해당되면서 형충(刑沖)이 된다면 ‘재’ 는 부인을 의미하므로 아내가 가출하는 흉신작용을 한다. 우리는 가끔 무던하게 잘 다니던 직장을 일없이 때려치우고 기질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설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알 같은 퇴직금만 날리는 사람들을 왕왕 본다. 이런 경우도 자신의 운명에 역마살이 기신(해로운 작용을 하는 운명요소)을 만나 광분하고 있는 시기였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 작용이 크든 작든 결국 역마를 뜻하는 인신사해 네 글자는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무릇 어려운 시작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다. 하다못해 작은 구멍가게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신산스런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한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시작이라는 산고를 넘어야만 결실이라는 옥동자를 볼 수 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초지일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고 여자를 피더라도 칠전팔기의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피나는 노력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인생, 바로 역마살 사주다. 그래서 본인의 사주에 역마살이 많다면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히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자신의 그림자까지 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말처럼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리고 달려야 하는 것이다. 모든 대가(大家)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대가가 되는 것이다.

남강 / 손병호 역리학자 (남강 철학원 017-560-3490)



• 궁합과 월하노인

1. 궁합과 월하노인

만추다. 창밖에 시나브로 낙엽이 진다. 찬란한 여름, 무성했던 광영의 날들은 어느덧 추억으로 남았는가! 간만에 잠기는 나의 상념을 깨고 이 계절 어김없이 우편함으로 찾아드는 한 장의 낙엽.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청첩장이다.

인생 또한 낙엽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온갖 희로애락과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인연을 만들면서 결국 영원으로 회귀한다. 그 인연 중에 가장 질기고 오래가는 것이 부부인연이다.

좋은 인연을 만나 해로 하는 것도 어려운 결혼 생활을 감내하는 것도 두 사람의 인연이다.

“어이 손 원장! 잘 지내제? 우리 집 큰 애가 이번 주말에 선을 보는데 며느릿감 함 봐 줄 수 있나?”

사실 궁합관계는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보아주지 않는다.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평소 신세를 지던 선배의 부탁인 터라 거절하기 힘들었다. “형님, 며느릿감 사주는 아직 모른다고요? 그럼요, 나이만 가지고 궁합을 볼 수는 없죠.” 나중에 보자고 둘러댔지만 평소 버릇대로 혼자서 아드님의 명조를 본다.

“거 참! 사주 좋다.”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인오술(寅午戌) 화국(火局)에 병화(丙火)가 천간에 투출하여 화(火)의 기운이 천하를 다 태울 듯 맹렬하다. 그러나 지지에 물을 흠뻑 머금은 진토(辰土)가 자리 잡아 수(水)가 적절히 거센 불을 잡아주니 가히 청룡이 불(火)을 토하는 멋진 사주다.

배우자 운은 어떤가? 일지 배우자궁에 정재(正財)가 함초롬히 자리 잡았으니 볼 것 없이 현모양처다. 금년과 내년에 걸쳐 인수(印綬)운이 들었으니 올해 안으로 약혼식이라도 하려나……. 아뿔싸! 배우자궁이 올해 인수 운과 충(冲)을 맞고 있다.

사주에서 나의 힘이 약할 때 인수가 오면 내게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인수는 길신(吉神)이라고 본다. 또 인수는 관인(官印)을 상징하니 계약이나 혼인의 성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인수가 충(冲)을 당할 때는 문서에 금이 가니 계약의 난항 또는 파기로 보고 혼인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진다.

게다가 이번 경우는 지지에 암장된 재성 천간이 인수와 충을 하고 있으니 드러난 문서는 흠결이 없을 지라도 실제 문서의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갔다는 암시다. 사주의 풀이는 암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서는 그 정확을 담보할 수 없다.

사주의 암시가 맞다면 청실홍실로 아름답게 엮이기보다 신부 쪽의 사정으로 서로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학력을 속였다거나 지나간 청춘의 아픈 사연이 나중 드러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여자 쪽이 을(乙)의 입장이다. 시대에 뒤진 이러한 사고방식은 서서히 사라지는 추세지만 형님집안의 유별난 보수적인 가풍이 걱정이 된다.

딱한 일이다. 형님의 목소리는 약간 들떠 있었다. 신부 쪽이 건설 도급 순위 국내 70위 이내에 드는 집안으로 혼사가 잘 맺어져 이번 기회에 침체한 자신의 사업도 피었으면 하는 바람이 전화 곁에 노골적으로 묻어왔다. 대놓고 산통 깰 일이 아니다.

모든 일이 인연 따라가기 마련이다. 쉽게 출발했지만 힘든 결혼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고 어렵게 출발했지만 결국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도 있다. 운택하지만 불행하게 사는 부부도 있고 거꾸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알콩달콩 사랑으로 사는 부부도 있다. 당장 처지가 어렵다고 경제적인 조건만 따져 억지로 인연을 맺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인연이 아니다. 궁합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두 사람의 타고난 성격의 장단점과 서로 보완할 부분을 알려주는데서 그쳐야한다. 궁합이 좋다 나쁘다로 성스러운 혼인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혼의 결(結)자는 길(吉)한 것을 실(絲)로 잇는다는 의미다. 하늘은 월하노인을 시켜 청실홍실 인연만 엮어줄 따름이다. 살면서 길(吉)한 일을 만드는 것은 결국 부부의 몫이다. 결혼은 혼인신고서에 도장만 찍어도 되지만 진정한 부부는 인내와 끝없는 이해의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이 가을 화촉을 밝혀 부부의 길을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이 한편의 시를 축가로 띄운다.

생각하면 우리들의 별은 얼마나 쓸쓸한가! / 이 쓸쓸한 지구라는 별을 함께 지나가자고 / 이제 한줄기 빛이 되는 두 사람. / 멀리 있었으니 서로의 빛을 바라볼 줄 알았고 / 어두웠으나 서로에게 다가갈 줄 알아 / 오늘 드디어 두 손을 잡는다. / 사랑은 소유가 아니

라 동행임을 아는 두 사람은…….(중략) 〈박미라 시. 아름다운 날에 붙여〉.

오늘도 월하노인은 달밤에 홀로 앉아 혼인부를 뒤적이며 짝을 지운다. “나는 이제 이 실로 당신들의 연을 이으니 그대들이여 그 인연을 소중히 하라.” 고 중얼거리며.

남강 손병호. 역리학자 051-2205 〈끝〉

• 검사와 여선생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역리칼럼] 검사와 여선생

2012년 12월 04일 [양산시민신문] [경로복사](#)



↑ ↑ 손병호
남강 역리연구원장
©

관객들은 언제나 ‘더 많이 보기’ 를 원한다. 이에 부응하여 스크린 산업은 ‘예술’ 과 ‘에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배우들의 옷을 조금씩 벗겨왔다.

여배우 가슴 노출을 보는 데만 40년이 걸렸다고 하니 기나긴 줄타리기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키스 여주인공은 윤인자다. 1954년 작 <운명의 손>에서 5초 정도의 가벼운 입맞춤을 언론훈은 대서특필했다. 요즘말로 포털 검색어 1위다. 이후 최초의 알몸 목욕 신까지 연기했으니 원조 에로틱 육체파 여배우인 셈이다.

사실, 윤인자는 그 전에 이미 김대룡 감독의 <검사와 여선생>(1948년)의 여주인공으로 스타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이 영화는 요즘도 추억의 영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가난한 고학생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주며 꿈을 키워 주는 어느 초등학교 여선생님. 세월이 흘러 선생은 어려운 처지의 탈옥수를 숨겨둔 일로 남편의 오해를 사게 된다. 칼을 들고 달려들던 남편이 문지방에 넘어져 즉사하자 결국 여선생은 살인범 누명을 쓰게 되는데... 담당검사는 바로 예전의 그 학생이었다. 옛 제자는 출세가 보장되는 검사직을 포기하고 선생님의 무죄를 입증한다는 다분히 신파조의 줄거리다.

최근 ‘검사와 여선생’ 이 아닌 ‘검사와 여피의자’ 사이 ‘성 추문 사건’ 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오르며 검찰의 명예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며...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는 검찰청 홈페이지 문장이 차마 읽기 민망한 노릇이다. 청사 내 조사실에서의 에로틱한 장면이라니, 포르노업자들에게겐 기발한 소재인지 몰라도 ‘더 많이 보기’ 를 원하는 원초적 호기심조차 낫 붉어지는 상황이다.

흔히 검사들은 자신들을 ‘논리의 칼로 무장한 선비’ 라고 자부한다. 타인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딱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검사들의 사주에 지적 분석력이 뛰어난 상관격이나 명예욕과 의협심이 강한 편관격이 많고 살(煞)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백호살이 흔히 보인다.

검사가 되더라도 백호살이 없으면 출세가 어렵다. 백호살이 어떤 살인가. 바로 피를 보는 흉살이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자신이 죽든 상대가 죽든 사생결단을 하는 강력한 살이다. 그래서 거침없이 사회의 거악을 기소하고 정의의 사도로 활약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친 이유도 클라이맥스에서 검사가 여선생에게 보여준 ‘의협’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를 거치면서 우리네 서민들은 언제나 법 앞에서 벌벌 떨어야하는 약자였다.

오래 전 한 탈옥수가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니 그 시대에는 오죽했으랴. 그래서 당시의 서민들은 영화에 나오는 정의감 있는 멋진 검사로부터 더욱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검찰조직은 그동안 술한 부패 사건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허나 <검사와 여선생>에 나오는 주인공 검사처럼 외압과 유혹에 맞서 올곧게 일하는 검사들마저 도맷금으로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 서민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곳은 결국 검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청렴하고 명예로워야 할 사명이자 개혁의 당위성이다. 차제에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벌레, 더러운 돈만 밝히며 약자 위에 군림하며 사육의 칼을 들이대는 흉물들은 과감히 척결돼야 한다. 맹수의 왕인 사자도 제 몸 속의 작은 벌레로 인해 죽게 된다는 범망경의 경구를 곱씹으며 깊은 성찰로 서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검찰상을 기대해 본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다른기사보기](#) mail@ysnews.co.kr

“”

- Copyrights ©양산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산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양산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 탐재괴인.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역리칼럼] 부서진 도장과 재물 (탐재괴인)

2012년 11월 06일 [양산시민신문] [경로복사](#)

‘사건 뒤에는 여자가 있다’ 다분히 봉건적이며 여성비하의 색채가 짙은 말이다. 하지만 일견, 남녀의 속성 상, 남성이 단순한 반면 여성은 생각이 깊으니 여자가 계획한 사건이라도 표면상 남자가 주인공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사건이란 본시, 욕망을 무리하게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수컷의 입장에서 욕망의 대상은 여자 아니면 재물이다.

남자측 운명을 감정할 때, 여자와 재물은 동일하게 본다. 본인의 일간(자신을 대표하는 오행)이 목일 경우, 오행의 순환과정상, 화는 나의 능력(재주)에 해당되고 토는 능력의 결과로 생산되는 것이니 바로 돈이다.



↑ ↑ 손병호

남강 역리연구원장

그래서 재물 재(財)라는 글자는 돈을 의미하는 조개 패(貝)와 재주를 의미하는 재(才)자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비속어로 여자를 조개에 빗대 말하기도 하니 명리학에서 재(財)를 여자와 동일시한 해석부분은 미상불 의도치 않은 ‘19금(禁)’ 성적 표현이 되었다. 현실적으로도 남자는 여자와 가정을 꾸려야 돈이 되고,

한편 돈이 많아지면 바람을 피우기도 하니 재물을 여자로 파악한 옛 사람들의 기지와 혜안에 절로 머리가 끄덕여진다.

‘돈이 발언하면 모든 것은 침묵한다’ 는 격언이 있다. 그만큼 돈과 여자는 남자의 운명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다. 그래서 재(돈, 여자)와 관련된 사주용어가 특히 많다. 이 가운데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탐재괴인’ 이다.

재를 탐하니 도장이 부서진다는 말이다. 도장은 높은 관리가 결재할 때 사용하는 인장이니 명예를 의미한다. 결국 여자와 재물을 밝히면 반드시 명예를 잃고 그 모가지가 달아난다는 서릿발 같은 계언이다.

여수시 횡령사건에도 여자가 있었다. 횡령액의 대부분이 부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 언필칭 그들의 막가파식 부부애 때문에 시민들만 힘들게 됐다. 도둑질 당한 돈을 다시 세금으로 보충하려면 가뜩이나 불황으로 휘청거리는 서민들의 허허로운 등골들이 또 얼마나 시려야 하나.

올해는 아직 무소식이지만 지난 대선 때 자칭 허 본좌님께서 출사표를 던지셨다. 대학 등록금 공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백만원 지원, 자녀 출산 시 천만원, 신혼부부에게 일억원 지급 등입이 딱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공약으로 일거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을 대폭 쓸어버리고 쓸데없는 곳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을 짹 짹 줄이면 충분하다고 기염을 토했었

다.

돈키호테 못지않은 그의 말과 행동에 소수이지만 일부 유권자들이 그에게 표를 던졌다. 거의 뺨에 가까운 환상적인 공약에 기대었다기보다 신뢰가지 않는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환멸과 반발 때문이었다.

목하, 많은 지자체들이 자원부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업적 과시용, 전시성사업에 재원을 낭비하는 단체장들이 있다. 어디 부패공무원만 세금 도둑이라, 감시 기능을 팽개친 상급 기관, 남의 돈으로 잔치하는 단체장들, 거액의 혈세가 줄줄 새는데도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의원들, 까놓고 되짚어보면 모두가 바로 제 3의 공공의 적이다.

지금은 연말과 대선이 맞물리는 어수선한 시기다. 부풀려 신청한 예산을 기한 내에 쓰지 못할까봐 무작정 쓰고 보는 묻지 마 행정, 전시성 행정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아소! 위정자들이시여, '만족함을 알면 위태함이 없고 멈춤을 알면 오래 갈 수 있다' 는 노자의 경구를 결코 허투루 듣지 마소. 도장이 박살난 후에는 이미 때는 늦었도다.

[다른기사보기](mailto:mail@ysnews.co.kr) mail@ysnews.co.kr

“”

- Copyrights ©양산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금이 강한 사주 (구월에 태어난 사람)

코스모스의 애잔한 대공에 초추의 양광이 하릴 없이 떨어지는 가을의 초입, 신새벽 품안에 파고드는 서늘함이 낮설어 잠을 깨면 안타까운 추억같이 더욱 명징해지는 귀뚜라미 소리. 그렇다 어느새 구월이다. 구월은 오행 상으로 신금에 해당된다. 신금은 예리한 장검처럼 긴장되고 서늘한 기운이다. 하지만 구월의 한낮, 여름의 아쉬움은 시방도 사라지지 않은 채 화살촉 같은 따가운 햇살로 남아있다.

오행 상으로 태양은 화다. 그래서 구월은 금이 발호를 하려고 해도 화가 금을 녹이는 여력이 있어(화극금) 엄격한 절제를 받는 장검과 같다. 항상 칼 집속에 들어 있지만 유사시 일전을 불사하는 용기와 절제를 상징하는 검이다. 하여 구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리가 있고 통제력이 강하다. 맺고 끊는 성격에 의사표현 또한 명확하다.

게다가 화는 예의범절이 바르고 금은 자기수양이 되어 있으니 구월에 태어난 사람은 필경 신사가 될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그 사람 참 신사야!" 한 시절 개인을 가리키는 최고의 찬사였다. 신사는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는 세상에 악착같이 내 것을 챙겨야만 살아남는다는 전 국민적 강박관념. 그 심리가 신사라는 단어의 멋진 뉘앙스를 구태의연한 단어로 탈색시켜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알팍한 시대심리랄까 훈남, 까도남 하는 신조어들이 등장하면서 신사라는 단어는 어느새 우리 주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한술 더 떠 정치권을 둘러싼 최근의 에피소드는 이제 "신사답다" 라는 말의 어원조차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안철수씨의 림 살롱출입 진위여부를 두고 정치집단과 대선후보군들이 서로 얼굴 붉히며 설왕설래를 했었다.

직장인은 친목과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사업가는 사업상 용무로 술집을 이용하는 것이 좋던 싫던 이 땅의 음주 문화다. 뿐이라 이차 삼차는 기본이고 폭탄주 술 문화와 한 집 건너 노래방, 두 집 건너 단란주점이 우리네 음주환경이다. 여성 종사자가 있는 술집을 가는 것이 결단코 바람직한 술 문화는 아니다.

허나 백번 양보해 중년의 사내가 타의든 자의든 '단란히 마시는 집(?)' 에 어쩌다 몇 번 들렀다고 하자. 현실론적으로 볼 때 일부러 변명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변명하면 더욱 이상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도덕군자의 실상의 탄로니 하며 정당과 언론들이 깨춤을 추었다.

시쳇말로 보기가 징글징글하다. 딱 깨서 신사답지 못하다. 하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이겨 살아남는 적자생존만이 선거의 본질이다라고 항변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 명색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아무리 상대를 흠집을 내기 위한 전략이라도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팔 걸어 붙이고나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명하면 될 일... >운운한 것은 정말 모양새가 빠지는 일이다.

비록 여성이지만 언제나 신중한 언행과 절제 있는 태도로 누구보다 신사 같은 후보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물론, 대선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과 대언론 코멘트는 후보개인만이 아니라 참모들과의 합작품일 것이다. 그렇다면 참모군들의 소양이 더욱 의심스럽다. 만약 이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면 나라의 백년대계보다 이 같은 자잘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라.

입추가 지난 지 이미 오래이건만 정치판은 아직도 냄비처럼 뜨거워 식을 줄을 모른다. 시장에서 상인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후보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형식뿐인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 사진이 오버랩 된다. 사진 속의 상인은 웃음의 크기만큼이나 진정 그 후보가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 무사가 자존심으로 승부하듯이 진정한 신사는 체면으로 승부한다. 자신을 알팍하게 포장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 향용유희

대선주자와 항용유희

5 □ 16 비사 하나. 거사 직전 김종필 씨가 육사 후배 석정선과 함께 장안의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갔다. 관상가는 종로5가 제일여관의 안채를 빌려 성업중이었다.

앞에 미리와 기다리던 사람들을 제쳐두고 관상가는 김종필 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대뜸 “세상을 뒤집어엮으려고 하시누만” 이라고 운을 뚫다. 당황한 김씨가 “아니, 여보시오 지금 누굴 죽이려고 그러시오?” 라고 시침을 떼자 그는 “다 됐어요. 걱정 마시오. 혁명하겠다고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뭘 그러시오.” 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석정선에게 “어허, 그거 파시오. 네 발 달린 것 가지고 다니누먼! 그게 사람 죽여요. 빨리 파시오.” 라고 했다. 그때 석씨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 있었다. 모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총리가 직접 전한 이야기다.

그 관상가가 바로 삼성그룹의 직원 채용 면접 시 자문역을 했다는 백운학이다. 그는 세무공무원이었던 한 보그룹 정태수 회장에게 본명을 태준에서 태수로 바꾸게 하고 철강업에 뛰어들도록 했다고 한다. 장안의 고관대작들과 재벌가 운명을 감정하며 이름을 떨쳤던 그도 자신의 천수는 어쩔 수 없었다. 79년, 50세 중반의 나이로 단명했다고 전해진다.

사주명리학계에 그의 유명세를 빌려 백운학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요즘도 더러 있다. 하지만 기실 김 전 총리가 만난 백운학도 원조는 아니다. 조선 철종 조, 청도 출신의 한 애꾸눈 관상가가 잠룡의 시절을 보내던 이하응에게 “머지않아 안동 김문의 세도정치를 박살내고 청운의 자리에 오르지만 권불 십년이라... 일개 아녀자로 낙마하리라” 고 예언했다. 그가 바로 원조 백운학이다. 그는 “네가 애꾸눈이었다면 관상가로 이름을 떨치고 그 덕으로 군수 벼슬은 할 수 있을 텐데……. 쫓쫓” 하는 스승 일허 선사의 탄식을 듣자마자 스스로 한 쪽 눈을 찔러 애꾸가 되었다. 나중, 대원군에게 주청하여 청도군수로 부임했으니 속세를 떠나 고고한 삶을 추구한다는 뜻을 지닌 백운학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사연이다.

백운과 대비되는 말은 청운이다. 천자(용)가 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푸른 구름이 있으니 고귀한 지위를 일컬어 청운에 올랐다고 말한다. 바야흐로 여러 용들이 연말 대권을 겨냥해 거센 용트림을 하고 있다. 그들의 측근들은 조바심에서 김종필씨처럼 제 3의 백운학을 찾아 하늘의 뜻을 귀동냥할 지도 모르겠다.

각설하고 비, 구름 없이 웅비할 수 있는 용은 없다. 구름은 그 기운이 땅에서 일어나고 하늘에서 비가 되어 내린다. 무릇 용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구름을 잘 타야만 한다. 구름은 다름 아닌 민심이다. 물 아래 잠겨 있을 때부터 민심의 소재를 잘 살펴야 ‘잠룡은 물용이다’ 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주역 64괘 중 첫째가 건괘다. 건괘는 천자(용)의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암시를 담고 있다,

묘하게도 건괘의 마지막 효는 ‘항용 유회’ 다. 바로 최고의 위치에서 생기는 자만심을 경고하고 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모든 용들이 구름위로 올라갈 때는 소통을 강조한다. 그러나 막상 권좌에 오르면 한결같이 양 손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의 거부다. 백운학이 예언한 대원군의 실각도 사실 유생들을 비롯, 민초들과의 소통의 거부에서 기인됐다.

어디 대선후보뿐이라, 장삼이사, 우리네 평범한 민초들도 형편이 잠시 유리하다고 자만하며 처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극즉반(物極則反), 만물은 극(極)에 차면 반드시 기우는 법이다.

양산시민신문 칼럼에 썼던 것을 약간 고쳤습니다.

• 화가 많은 사주

화가 매우 강한 사주를 적수오건(滴水熬乾)이라 한다. 말인즉 ‘불벌더위에 겨우 한 방울의 물’ 이라는 뜻이다. 백년만의 가뭄과 더위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예비 전력이 제로로 치달리는 전력 대란의 위기가 여름내 계속될 것 같다. 말하자면 국가라는 집단 운명이 화기가 극심한 적수오건에 처한 셈이다. 화(火)기는 오행론에서 방향으로는 남쪽, 성질로는 불과 태양이다. 불은 활활 타오르며 태양은 어둠을 밝히니 솔직한 열정과 통이 큰 성격, 예술적 취향, 정직, 예의 바른 등이 특징이다. 위인이 호, 불호를 확실히 하며 술 값 낼 때 남보다 지갑에 손이 먼저 가는 사교적 인물이라면 일단 화기가 강한 성격이다. 또 성질이 급해 전후 사정을 무시하고 버럭 화를 내는 기질 또한 이 유형이다. 한 성질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인관계가 응색한 경우도 많다.

지난달, 이해찬 전 총리가 라디오 전화 인터뷰 중간, 난처한 질문이 계속되자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청취하던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였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사건 자체보다 노련한 정객이 전국의 청취자들 앞에서 굳이 품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또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지 않을까 의심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훨씬 더 재미가 있었다. 그러나 웬걸 그가 화를 무시로 내어 ‘버럭 총리’ 라는 별칭이 있었다는 후속보도에 사주명조를 검색해보니 짐작대로 화기가 매우 승한 사주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이나 주위의 평판에 예민하다. 나이 들면 소형차 타기가 민망하고, 회식자리 분위기 때문에 마시고 싶지 않는 술도 마셔야 한다. 불쾌한 일에도 솔직하게 화내서는 안 된다. 웅졸한 사람으로 치부된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니 참으로 속은 답답해진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다. 미생고라는 사람의 집에 누군가 식초를 얻으러 왔다. 마침 그의 집에도 식초가 없었다. 미생고는 일부러 이웃집에 가서 식초를 얻어다 그 사람에게 주었다. 이 일화를 접한 공자는 “누가 미생고를 솔직하다고 말하는가” 하며 미생고의 체면치레를 비판했다. 없으면 못 빌려주는 것이 당연지사다.

이런 맥락에서 약속과 다른 사회자의 질문에 체면불구하고 버럭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린 태도, 상식에 어긋나지만 일견 개인의 솔직성이 담보되는 작은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그가 일반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치적 지위가 높으면 그 책임 또한 높다. 그는 한 때 ‘왕 총리’ 라고 불린 적이 있었다. ‘왕(王)’ 이라는 글자는 유교에서 사람이 귀순해서 몰려오는 중심 되는 곳이라고 정의된다. 왕의 지위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같아지기를 바라고 사사건건 잘못과 실수에 화를 낸다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공자는 ‘거상불관’ (居上不寬)—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너그럽지 않다면 그 인간은 다시 쳐다 볼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했다. 어디 정치인뿐 이라 화 기운이 강해 뚜껑 자주 열리시는 분들, 매사 화를 내기에 앞서 그 화의 근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마음 바라보기 버릇을 가져야한다. 화가 사그라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 계속될 불벌더위, 부디 화를 잘 다스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처신해야 한 여름 지내기가 수월할 듯하다.

• 고독과 강남스타일

배반의 고독(국화)과 강남스타일

아파트 옥상 너머로 하늘이 아득히 멀다. 계절은 이미 가을의 한 가운데다. 시인 김광균은 추일서정에서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 호올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쪽에 / 고독한 반원(半圓)을 굽고 잠기어 간다.>며 가을의 서정을 노래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젊어 떠나온 고향도 생각하며 절로 쓸쓸한 마음이 일기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다. 하지만 사춘기 청소년도 아니고 고독은 랜스레 오지 않는다. 결국 고단한 인생 여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좌절의 쓰라린 심정이 떨어지는 낙엽에 투사되어 나타날 뿐이다.

추석 직전, 5대 일간지는 자존심 하나로 힘든 정치인생 역정을 걸어온 얼음공주 박근혜의 고개 숙여 사과하는 사진을 1면 톱으로 다루었다. 사과에 따른 득실을 생각하기 이전, 사과를 요구하는 세상의 분노의 면전에 나아가 아버지의 역사에 관해 과오를 인정해야하는 행위, 자식으로서 차마 하기 힘든 일이다. 참담한 마음으로 고독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최근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싸이 또한 고독한 시절이 있었다. 병역문제로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군에 입대하던 순간, 가수로서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회의했을까?

논어의 <덕불고 필유린>구절은 <덕이 있는 자 고독하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뜻이다. 사실, 여기서 덕이란 저속함의 반대, 고상함을 일컫는다. 즉 고상하면 처음엔 사람들이 멀리 하지만 결국 그 고상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렇다 결국 고독도 깊어지면 길이 나뉜다. 고독을 배수진으로 덕(고상함)을 함양해 세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경우와 고독의 강에 빠져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스러지는 유형, 논어는 우리에게 고상함에서 고독을 이겨내는 힘을 얻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당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은 귀거래사에서 <채국동리하 유연견 남산-동쪽 담 아래 핀 국화를 꺾어 들고 무심히 남산을 바라본다.> 이라며 벼슬에서 낙향한 심정을 가을의 국화에 비유하여 응수하고 있다. 일견 유유자적 자연친화적인 선비의 마음이 주제이건만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하필 국화였을까? 도연명의 국화는 예사롭지 않다. 늦가을의 찬 서리에 모든 화초들이 꽃잎을 떨어뜨릴 때, 홀로 피어나 고상함을 향기로 자태를 뽐내는 국화, 어찌 보면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는 배반의 행위이다. 하지만 옛 선비들은 국화를 가인이라며 아끼고 가꾸었으니 고독을 이겨내는 인간 정신의 승리를 국화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무리 짓지 않는 고상함은 개성이 되고 개성은 바로 창의성으로 귀결된다. 고독이 깊어져서 고상함으로 그 고상함이 창의성이 되어 세계로 꽃 피어난 것이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지 않은가. 고독과 우수에 바바리코트 깃을 세우는 것도 멋스런 계절 감각이 겠지만 “근육보다는 사상이 울퉁불퉁하고 때가 되면 완전히 미쳐버릴 줄 아는” 개성또한 국화꽃의 배반에서 읽을 줄 안다면 정녕 멋진 강남스타일이라.

<남강역리연구원장 손병호 >

- 양산시민신문 창간 9주년에 부쳐(신사의 품격)
-

본인이 신문칼럼 기고한 것 옮겨온 것임

역리칼럼] ‘신사의 품격’ - 양산시민신문 창간9주년을 맞아

2012년 09월 04일 [양산시민신문] 경로복사



계미년 경신월 무진일 병진시. 양산시민신문의 명조다.

양력 생일은 팔월 이십삼일, 코스모스의 애잔한 대궁에 초추의 양광이 하릴 없이 떨어지는 가을의 초입이며 신 새벽 품안에 파고드는 서늘함에 잠을 깨면 문득 귀뚜라미의 명징스런 소리가 가슴 먹먹한 추억으로 이어지는 절기이다.

여름의 이글거리던 화기는 점차 약해지며 물빛은 차분해지고 절 집의 종소리가 맑아지니 금이 제 빛과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오행 상으로 신금이다. 신금은 예리한 장검처럼 긴장되고 서늘한 기운이다.

↑ ↑ 손병호
남강 역리연구원장
©

하지만 8월 말의 한낮, 여름의 아쉬움은 시방도 사라지지 않은 채 화살촉 같은 따가운 햇살로 남아있다. 그래서 금이 마음껏 발호를 하려고 해도 아직은 태양의 여력이 있어(화극금) 엄격한 절제를 받는 칼 집 속의 장검과 같다.

양산시민신문은 이렇게 절기상 검의 기운을 강하게 받고 태어났다. 부정과 부패를 획책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예리한 검광으로 심장을 파고드는 비수,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는 병상을 지켜주는 휴머니티로 무장된 활인의 메사이여야 하는 상반된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항시 칼 집속에 들어 있지만 유사시 일전을 불사하는 용기와 절제의 보검, 출중한 신언서판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지역의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신문의 사주상 특징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신사라고 한다. 하여 양산시민신문의 명조는 바로 ‘신사의 품격’ 이다.

하지만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는 각박한 세상’에 이 신문이 양산의 빛나는 메아리가 되어 언론의 정도를 걸으며 신사로서의 삶과 체면을 유지하며 어언 9주년이라는 성상을 맞이한 것은 실로 뜻 깊고 축하할 일이다.

신사는 체면으로 산다.

그러나 알팍한 시대심리랄까. 최근 훈남, 까도남 하는 신조어들이 등장하면서 신사라는 단어는 어느새 쓰이지 않는 사어가 되고 있다. 한 술 더 떠 정치권을 둘러싼 최근의 에피소드는 이제 '신사답다' 라는 말의 어원조차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안철수 씨의 룬살롱 출입 진위여부를 두고 정치집단과 대선후보군들 사이에 한동안 얼굴 붉히는 설왕설래가 있었다. 직장인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사업가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술집을 이용하는 것이 좋든 싫든 이 땅의 음주 문화다. 뿐이라 이차 삼차는 기본이고 폭탄주 술 문화와 한 집 건너 노래방, 두 집 건너 단란주점이 작금의 음주환경 실상이다.

여성 종사자와 함께하는 술 문화를 옹호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허나 백번 양보해 '단란히 마시는 집(?)' 에 어쩌다 몇 번 들렸다고 하자. 현실론적으로 볼 때 일부러 변명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변명하면 더욱 이상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도덕군자의 실상이 어찌고저찌고하며 정당과 언론들이 깨침을 추었다.

시쳇말로 보기가 징글징글하다. 딱 깨서 신사답지 못하다. 하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이겨 살아남는 적자생존만이 지고지선의 우리네 선거풍토라고 항변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 명색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입추가 지난 지 이미 오래이건만 정치판은 아직도 냄비처럼 뜨거워 식을 줄을 모른다. 시장에서 상인들과 웃고 있는 대선후보들의 사진을 신문지상에서 볼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치뤄지는 포장과 형식뿐인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 사진이 오버랩 된다.

사진속의 상인은 웃음의 크기만큼 진정 그 후보가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 무사가 자존심으로 승부하듯이 신사는 알팍한 포장이 아닌 진정한 체면으로 승부한다.

양산시민신문 또한 앞으로도 자신의 운명대로 신사의 체면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물론 신사이니 복채는 양심껏. 꺾꺾!

• 학업은 과 인수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역리칼럼] 학업운과 인수(印綬)

2013년 05월 07일 [양산시민신문] [경로복사](#)



↑ ↑ 손병호

남강 역리연구원장

©

일요일 오전 TV 교양프로그램 ‘진품 명품’에서 한 번은 길이가 1미터 남짓 되는 서너 종류의 끈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가는 실을 여러 겹으로 꼬아 물감을 들인 것으로 어떤 것들은 꼬트머리에 장식용 매듭이 붙어 있는 것도 있었다. 출연자들이 그 끈의 용도를 알아맞히려고 꽤 애를 썼지만 번번이 빗나갔다. 결국 고미술 감정위원에 의해 그 끈은 옛날 선비들이 나들이 할 때 입는 겹옷인 도포를 묶던 허리끈으로 밝혀졌다. 또 신분과 지위에 따라 색깔들이 달랐고 그 끈에 호패를 차고 다녔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그 끈의 정식 명칭은 인수(印綬)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결재용 도장(관인)을 잊어버리면 엄한 문책을 당해야 했다. 관인은 주로 관아의 공물이나 금전 등의 출납과 관계가 컸기 때문이었다. 인수라는 말은 도장 인(印)과 끈 수(綬)의 합성어이므로 고을 수령이나 관리가 그 관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도포 끈에 묶어 다녔던 것에서 유래했다. 한복이 생활에서 멀어지면서 인수라는 말은 지금은 듣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인수라는 말은 사주명리학계에서는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 키워드이다.

인수는 나 자신(日干)을 놓고 키워주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오행을 말한다. 만약 나의 일간이 나무(木)라면 목을 생(生)하는 것은 불이니 바로 오행 중 불(火)의 기운을 나의 인수라고 한다. 나의 일간의 세력이 약할 때 인수 운이 오면 힘을 보태주니 일이 잘 풀리지만 나의 일간이 왕성할 때 인수 운이 오면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된다. 이때는 자신의 힘센 것만 믿고 의욕이 지나쳐 조급하고 무리한 추진을 하게 되니 큰 실책을 범하기 쉽다.

인수운의 또 다른 특징은 학문성(學問星)이다. 인수가 과거 급제를 알리는 교지나 문서에 찍히는 관인을 의미하므로 합격이나 취직, 승진운과 관계가 깊다. 초년에 인수운이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 된다. 반면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중·고등학교 때 재성(財星) 운이 오면 공부보다 오락이나 이성 친구에 빠지게 된다. 재(財)는 재물복을 의미하지만, 학생의 경우 놀이나 이성관계의 진전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간고사가 끝나자 자녀의 학업운에 대한 고민을 듣는 사례가 많아졌다. 심지어 공부 잘하게 되는 부적을 부탁하는 어머니들조차 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지 않으면 졸갑증을 낸다. 그러나 개성이 강한 이 시대에 강요와 억압으로 시키는 공부는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초·중학생인 경우 학원에만 맡겨두지 말고 부모가 직접 챙기되 확인-설명식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귀찮겠지만 학교나 학원 숙제를 부모가 시간나는 대로 확인하고 몇 문제를 지적해서 그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을 직접 설명하도록 시키는 방법이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조리가 없으면 해당 단원을 복습시킨 후 재확인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니 자신감과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단, 대답이 느리거나 설명이 부족할 경우, 절대 억박질러서는 안 된다. 제대로 설명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부모의 참을성이 이 방법의 성패를 가른다. 초·중학교 때 올바른 공부습관을 부모가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백 번의 기도, 천 장의 부적보다 훨씬 영험 있는 방책이다.

• 내가 입을 열면 다쳐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역리칼럼] “내가 입을 열면 크게 다쳐”

2013년 07월 02일 [양산시민신문] [경로복사](#)



↑↑ 손병호
남강 역리연구원장

최근 미국정부가 자국의 정보기관이 구글 등 인터넷 서버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한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우튼을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누설자’로 지목하고 각국에 그의 망명을 불허토록 압박해 전 세계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는 무시무시한 말은 5공 청문회에서 장세동 씨가 자신을 처벌하려는 여론이 높아지자 당시의 노태우 대통령을 겨냥해 한 말이다. 얼마 전 가수 장윤정이 결혼을 앞두고 방송에서 역대 빛에 대해 심경을 토로하자, 그녀의 동생 장경영 또한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누나가 다쳐”라는 말을 해, 또다시 이 말이 세간의 유행어가 되고 있다. 내부고발이라기보다 협박에 가까운 어감으로 들려 뒤끝이 슍스한 말이다.

◎
내부고발은 공익을 위해 조직의 위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 호루라기’다. 휘슬 블로어라고 알려진 내부고발자의 기원은 로마 군대의 엄격한 진군규칙에서 나왔다. 창·보병들이 방패를 앞세우고 진격하다가 한 발이라도 물러서는 병사가 있으면 걸의 병사가 찔러 죽이게 했다. 이 규칙을 어기면 그 옆의 다른 병사가 의무를 소홀히 한 동료까지 죽이도록 했다. 병사들에게 후퇴는 곧 위법이라고 보고 조직 구성원이 직접 죄를 물어 처벌케 한 것이다.

내부 고발자로 나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내부고발자는 ‘정의 실천자’라기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씨의 경우 감사원과 정·관계, 재벌 기업 사이의 정경 유착 실상을 고발한 이후 직장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파면되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해야 했다.

이런 쉽지 않은 일을 기밀보호를 주 임무로 해야 하는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했다. 그것도 국민의 공익과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명예와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직접 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 대화록을 공개했다.

누항의 필부들도 명예가 걸린 일이면 맥살잡이를 한다. 조직의 수장이 제 식구들 명예를 지키겠다는데 누가 말리랴. 허나 동네 통·반장도 아니고 국정의 중추, 최고 권력기관의 우두머리다. 머릿속 의사결정의 매커니즘이 달라야 한다. 그의 비상식적 판단으로 조직의 명예는 박살나고 우리의 정보기관은 지금 세계의 비웃음을 받고 있다.

사주에도 비밀을 잘 유지하는, 속칭 입에 지퍼를 꼭 채우는 스타일이 있다. 사주 일간에 토기가 강하면 그렇다. 일간이 강한 토 오행인 경우, 위인의 성격이 신중하고 설혹 무덤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비밀을 지키며 자기의 속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매사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며 중후한 인품을 지닌다. 앞으로 국가기밀 엄수를 위해 국정원장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회보다 사주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 등터지는 새우들

역리칼럼] 등 터지는 새우들

2013년 09월 03일 [양산시민신문] 경로복사

↑ ↑ 손병호

남강역리연구원장

©

모 라디오 신청곡 프로그램에서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넌센스 퀴즈를 냈다.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 서로 자존심이 강해서,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해 서라는 등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정답은 이름 때문이었다. 둘 다 ‘갑’이었기 때문이었다.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세태가 세태인지라 무심코 웃을 수 만은 없었다.

드라마 모래시계 프로듀서였던 김종학 씨가 자살했다. 유명을 달리한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지만 그의 안타까운 죽음 이면에는 방송국과 외주 제작사간의 부당한 ‘갑을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연초부터 시작된 금년의 화두는 갑을관계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갑을의 관계가 조정은 커녕 대립 양상만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주말, 남편이 조선소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던 30대 후반의 여성 내방객. 조선 경기 악화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모아 둔 돈은 넉넉치 않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로 양산지역 공단도 심각한 고용 불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분쟁으로 조업 단축 내지 중단 상황으로 자칫 실적까지 내몰리는 하청업체 직원 입장에서 노측의 요구는 별세계의 일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비로만 천만원 지급요구. 꿈같은 이야기다.

명리학에 등라계갑(藤蘿繫甲)이라는 말이 있다. 등은 넝쿨나무를 말하고 갑은 큰나무를 의미한다. 사주에서는 나무를 음양으로 나누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아름드리 소나무(갑목)와 같은 형상이며 다른 하나는 넝쿨식물과 같은 유약한 나무(을목)다. 소나무와 같이 곧게 자라는 식물은 홀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을목은 소나무와 같이 기댈 곳이 있어야 높이 타고 오를 수 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의지 할 수 있을 때 생기가 나고 살 맛이 난다.

을목의 사주를 타고 난 사람은 갑목을 만나야 일이 풀린다. 하나 요즘 사회현상은 되려 을이 갑을 만나면 비참한 종말 뿐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어느 시대인들 황금만능시대가 아닌 때가 없었지만 확실히 요즘은 ‘돈이 입을 열면 모든 것은 입을 다무는, 닥치고 돈’의 시대다. 돈 앞에서 의리도, 상식도, 체면도, 예의도 없다. ‘웬수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논리를 좇아 나보다 열악한 사람의 등에 빨대를 꽂아야 살아 남는다는 극단적 사고가 판을 친다. 심지어 자녀에게도 세습시키는 시대다.

“선생님. ‘갑’으로 태어나는 사주가 원래부터 따로 있습니까?” 언젠가 동네 술집에서 합석한 작업복의 남자 분이 내 명함을 보더니 다짜

고짜 물어왔다.

고래들 싸움에 등이 터지는 불쌍한 새우, “내 평생 올이라도 한 번 돼 봤으면 원이 없겠다” 며 쓴 소주를 목구멍으로 털어넣던 그 사람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며 정신적인 가치만이 나와 가정의 미래를 지킨다” 는 내 말이 제대로 들렸으랴. 내 자신도 어느새 마음의 언덕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언덕(갑)에만 등을 비비려는 소(을)가 돼버렸는데.

• 사주에 물이 과다한 경우.

가명 이원호

음) 42세 72년 10월 12일 자시

임자 신해 임자 경자

십신분석: 비견 겁재 정인 비견 (나)겁재 편인 겁재

낙엽이 진 양상한 나뭇가지가 다시 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실패가 많다. 고상한 성격에 마음이 고르지 못하니 인색할 때는
사정없이 인색하고 후할 때는 너무 후해서 교만해 보이기도 한다.
가령 어떤 큰 일을 당하여도 근심걱정을 드러내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나 의심이 많아 남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실패를 가져온다.

초근후태의 명과 같이 초년에 고생했다면 말년은 길하게 된다.

※ 태어난 달로 본 운명

마음이 한결같고 착하다. 그러면서도 한번 뒤틀리는 일이 있으면
용서할 줄 모르고 강한 고집으로 결단을 내버리는 성품이다. 사십 세를
넘기면 근사한 노년의 맛을 풍기며 성질도 누그러지고 풍파도 없을 것이다.

※ 태어난 날로 본 운명

지식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의식도 충만한 대길한 사람으로
학자의 명이다. 일찍 실업가로 진출해 활약한다면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 귀하의 성격

== 水 -> 水 過多 ==

풍파가 많다. 쫓대가 없다. 언행이 경솔하다. 그러므로 실패가
다단하다.

그러나 모든 일에 치밀함은 있다. 똑똑하므로 기계 제작기술 등의 직업은 적격이라 하겠다.

문화, 예술, 교육, 독창적인 일, 지혜, 언론, 역학 등이 적합하다.

※ 귀하의 재물은

담 밑의 샘같은 격이다. 과연 담 밑에서 샘이 솟는다면 말이 가능한 것일까. 이 말은 귀하의 빠른 머리 회전만 믿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움직임이 빠른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망은 있으나 재운이 따라주지 않으니 이를 어쩐다 말인가.

담 밑의 샘같은 격이다. 과연 담 밑에서 샘이 솟는다면 말이

※ 귀하의 건강은

수의 오행에 어울리게 성행위를 문란하게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 성병, 신장병, 비뇨기질환 등의 질병이 우려되고 고통이 따른다.

-- 大運 傷官 : 歲運 劫財 --

심한 정신적, 물질적 고민과 부부간 불화가 있다. 공동사업은 모두 실패 손실뿐이니 삼가라.

타인에게 물질적 폐를 끼친다. 처의 신상에 재해가 있고 손윗사람과 의견이 대립되고 사업 또한 실패한다.

== 身強 四柱 -> 歲運 劫財 ==

불길하다. 손재수 따른다.

○ 2014 년 : [食神] 甲 午 [正財] 세운
상사와 의견대립이 보인다.
재해가 있다. 자본가와 공동사업을 하면
귀하에게 많은 이익이 있다.

법조 계통의 직업, 상가, 거래, 투기사업은 길하다.

○ 2015 년 : [傷官] 乙 未 [正官] 세운
파괴, 교만, 이별, 해산 등의 일이 따른다.
불이익이 있다.

상속권 권리행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남의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가정풍파가 일어나는 때다.

자식과의 인연에 문제가 있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 2016 년 : [偏財] 丙 申 [偏印] 세운
두려움과 고민이 많다.
사업상 다른 사람과 손을 잡으면 금전상의 손해가 있다.

또한 타인에겐 이익을 주나 본인한테는 불리하다.
권리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손해가 따른다.

○ 2017 년 : [正財] 丁 酉 [正印] 세운
외부로는 윗사람으로부터 자본의 덕이 있다.
처 또는 재산 관계로 덕을 쌓는다.

지위를 버리고 권리를 욕심내지 않는다면 이익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면 댓가가 있다.

== 年支 -> 歲運 破 ==

질병이 있다. 직장인은 관재구설, 심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를 조심하라.

○ 2018 년 : [偏官] 戊 戌 [偏官] 세운

좋은 기회를 맞았다. 상업, 공업, 청부업 등에
이익이 있다.

○ 2019 년 : [正官] 己 亥 [比肩] 세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 문재인과 동일가애

문재인과 동일가애.

겨울에 태어나 좋은 것 가운데 “겨울아이” 라는 생일 축하 노래도 한 몫한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으로 시작되는데 멋진 가사 말과 리듬이 생일축하로는 제격이다. 사주로 보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수기가 강한 것으로 본다. 더구나 생시가 밤일 경우 수기는 더욱 왕하여 사주는 한랭 할 수밖에 없다. 오행의 분석에서 수기는 지혜와 신중함을 표상한다.고로 수기가 왕하면 신중하고 치밀하지만, 너무 심사숙고하여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이며 활발한 에너지가 요구된다 고 하겠다. 결국 수기가 왕하면 신중함으리 지나쳐 실기할수있으니보다 더적극적으로 움직일수있는 화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얼어붙은 동토에 온기를 가져다줄 화기가 필요하니 이름하여 사주용어로 동일가애다. 한겨울에 태양을 보니 반갑다는/듯이다. 실제출전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문공편(文公篇)에 의하면 진(晉)나라 영공은 왕위에 오른 후, 유치하고 무능하였으며 도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다. 조돈(趙盾)이 몇 차례 엄하게 간언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들기 까지 하였다. 얼마후, 적(狄) 사람들이 노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자, 노나라 문공은 진(晉)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진나라의 조돈은 적땅으로 도망가 있던 가계(賈季)에게 부탁하여 적(狄)의 재상인 풍서를 문책하게 하였다 풍서가 가계에게 물었다. "진나라의 조쇠(趙衰)와 조돈(趙盾)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어진 사람이오?"

가계가 대답했다.

"조쇠는 겨울날의 태양이고, 조돈은 여름날의 태양이오[趙衰冬日之日也, 趙盾夏日之日也/조쇠동일지일야, 조돈하일지일야]." 본래 표현은 "冬日之日(동일지일)"인데, 두예(杜豫)라는 학자가 이에 대하여 "冬日可愛,夏日可畏(동일가애,하일가외:겨울 해는 좋지만,여름 해는 무섭다)"라고 주석(註釋)을 달았다. "동일가애"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문재인 후보의 사주(임진년 계축월 을해일 병술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문 후보의 사주는 을목일주가 매우 한랭한 축월(丑月)에 태어나고, 천간마저 한랭한 기운인 임계수(壬癸水)가 투출하여 사주가 매우 춥다. 이런 경우에는 추위를 견디게 하는 불이 절실하다. 따라서 강력한 열기인 태양이 떠올라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 언 땅을 녹이는 것이 급선무다. 해자축월(亥子丑月)에 태어난 을목은 매우 한랭해 병화(丙火)·사화(巳火)·인목(寅木)과 같이 따뜻한 화기(火氣)와 겨울의 수기(水氣)를 막아줄 천간의 무토(戊土), 지지의 숯토(戌土)를 원한다. 다행히 문 후보는 시주(時柱)에 병술시(丙戌時)라 태양불인 병화(丙火)와 수기를 막아줄 건조한 숯토(戌土)가 있어서 좋다. 대운마저 30대 중반 이후 30년간은 정사(丁巳)·무오(戊午)·기미(己未)운인 따뜻한 남방운으로 전개되니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기미대운으로 좋은 기세이다. 그러나 올 임진년은 천간이 임(壬)으로 추운 기운이고, 진(辰)이 습토라 음력 10월 이후 겨울로 갈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행인 것은 기미(己未) 대운의 토기운이 얼마나 임수의 기운을 막아주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공자(孔子)는 향원(鄉愿)에 해당하는 사람을 “덕(德)의 적(賊)” 이라 말하며 극도로 배격하였다. 향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 고을에서 모든 사람에게 근후(謹厚)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듣는 사람이 어째서 문제인가? 그의 모습은 신의가 있어 보이고 행동은 청렴한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세속에 영합하여 바른 도리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사이비(似而非)가 이러한 사람이며, 양쪽의 의견에 분명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어떠한 비난도 교묘히 피하는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덕과 비슷하지만 덕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덕의 적” 이라고 말할 것이다. 공자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 “내 문 앞을 지나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 내가 유감스럽게 여기지 않을 사람은 오직 향원이다.” 라고도 말하였으니, 얼마나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겠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향원이 없는가? 향원을 덕을 지닌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옳다 하고 저것도 옳다 하며, 여기에도

고개를 숙이고 저기에도 고개를 숙이며 칭찬만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에 서서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공자가 말하는 향원이며,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은 사이비에 불과하다. 단순히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 중 옳은 쪽에 서는 것이 진정 옳은 것이며, 진정한 중(中)이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다시 공자의 말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 “착한 사람이 좋아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미워해야 한다.[善者好之 不善者惡之]” 라고 하였다. 착한 사람에게는 동조하고 나쁜 사람과는 맞서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그를 좋아하지만 나쁜 사람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다. 즉, 나쁜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더라도 싸워 바로잡을 수 있어야 사이비인 향원이 되지 않고 진정 덕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주로 보는 세상

블로그

효원의 사주 이야기

<http://blog.daum.net/sohnbyungho>

저자

효원/ 남강

발행일

2015.02.07 04:06:51

 블로그